

전쟁에서 이기는 군사들 VI

신앙 수준에 따라 영적싸움의 레벨도 다릅니다.

1. 감당할 시험

[고린도전서 10:13]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시련이 있다. 그런데 이 시련에는 법칙이 있다.

(1)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13절) : 시련과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 옴의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2) 허락된 시련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아래에서 일어난다. (감당할 시험)

이 말은 성도들이 겪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시련에 대해 바른 태도로 임할 수 있다.

(3) 시련은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훈련’과 같다.

결국 시련을 통과할 때 다른 레벨로 나아가게 된다. 모든 것이 탁월한 코치이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움직여지기 때문에 시련은 사실 훈련이다. 시련을 당하는 당시에는 힘들다. 훈련도 그 과정은 힘들지만 모든 훈련에는 결과가 있다.

옴의 시련은 훈련이다. 그래서 옴은 고백한다. 시련 뒤에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한다. 그래서 옴의 시련은 훈련인 것이다.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라. 우리 인생에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한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의 고백이다. 연단을 이긴 사람의 고백이다.

[욥기 42:5]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뵈옵습니다.

2. 시험의 단계

(1) 광야의 시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위한 준비이다. 이 곳에서 어떤 훈련을 받는가?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다. 보여지는 것에 대한 훈련이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훈련이었다. 왜 이 단계의 훈련을 하는가? 옛 사람의 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신앙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싸움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수준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먼저 철저하게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2) 가나안의 싸움

가나안의 싸움은 다르다. 믿음의 싸움이다. 여러고를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이기는 것이다. 순종해야 이기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내면’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방법 말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불순종’과의 싸움이다.

가나안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내면안에 있는 마음전쟁이다. 가나안 싸움의 키워드는 '자기부인'이다.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한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취한 '욕망과 욕심'으로 인한 패배이다.

가나안의 싸움은 레벨이 다르다. 단순히 보이는 것을 참고 안 하는 정도가 아니다. 내면안에 있는 '죄인된 자아'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가나안 싸움의 키워드는 광야의 키워드와 다르다. '자기부인', '희생', '연합', '오래참음', '순종'과 같은 키워드가 대두되는 것이다. 결국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가나안에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자세이다.

신약에서 이러한 마음자세를 예수님은 팔복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팔복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팔복은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마음자세를 말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다.

(3) 싸움의 레벨이 다르다.

광야에서의 다윗의 싸움과, 헤브론을 통과해 예루살렘에 나아간 다윗의 싸움의 레벨이 다르다. 예루살렘을 보라. 이미 왕이 된 다윗에게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권력, 정치화 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붙잡아야 할 키워드는 다르다. 힘에 관심없던 사람들이 권력과 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자리를 요구한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정치적 암투가 자리를 놓고 벌어진다.

다윗 안에 있는 마음의 스트레스와 긴장은 광야의 긴장과는 다르다. 결국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한 가지를 구하며 이긴다. 오늘 내 신앙생활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시험과 시련을 바라보라. 그리고 단계들을 통과해 나아가라.

3. 훈련만이 답이다.

결국 마음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함의 상태이다. 어떤 에너지도 소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훈련하면 된다. 훈련은 일에 대한 갈등을 제거한다. 훈련은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마음의 근력이 갈등하지 않게 한다.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훈련하라.

(1) 기도훈련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훈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기도 말고 답이 없다.

(2) 마음훈련

내 마음의 약한 영역을 훈련해야 한다. (공허, 사랑, 기쁨, 소망, 믿음 등) 구체적으로 나의 약한 영역의 마음을 훈련한다.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자유할 때까지, 즉 갈등이 없을 때까지, 몸에 벨 때까지 훈련하라.